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제5조 / 조과복음 5

성 대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 성인 찬양송 / 229, B 263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 사도경 : 히브리 1,10-2,3 /

229, 봉독서 448

· 복음경 : 마르코 2,1-12 / 138, B 94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 62, A 171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017년 대교구의회 임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의 중심 주제 말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 여러분, 이제 보고의 마지막 부분인 2017년 중심 주제에 대해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이미 언급한 대로 '회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론에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종교 상황에 대한 통계가 보도되었습니다. 모두 미래에 대해 비판

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종교인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십년간 무신론자들은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6,1% 즉, 거의 인구의 절반(2천 7백 5십만 명)이 무신론자이거나 종교와 관련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심각한 사례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

☞ 2면으로 계속

☞ 1면에서 계속

중 41~51%의 신자들이 최근 3년 이상 성당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과 멀어지는 이유, 특히 젊은이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신론화 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들의 일관성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5,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모든 전승자들은 이 말씀을 신조로 삼고 있었으므로 모두가 세상의 개혁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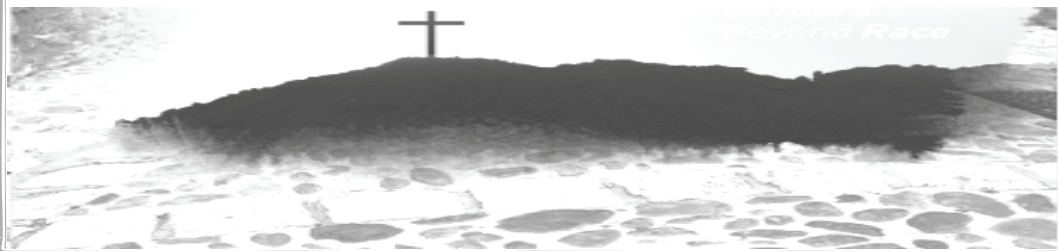
교회의 위대한 교부들과 스승들의 성공은 가르친 대로 산 것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르치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은 말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기”(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창조에 대해, 설교 8, PG 53,73-74) 때문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에 따르면 말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위대합니다.”(고린토 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에 대해, 설교 32, PG 61, 265) 또한 nil로스 성인은 “행동이 없는 말이 주는 유익보다, 말이 없는 행동이 주는 유익이 더 큼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자는 유익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해롭기 때문입니다.”(nil로스, 서신 3, 242, PG 79, 496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비잔틴 학자인 스티븐 런치만 박사(Sir Steven Runciman, 1903~2000)는 1994년 그리스 ET3 방송국과의 인터뷰 방송에서 “나는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해 그리고 특히 정교회에 큰 존경심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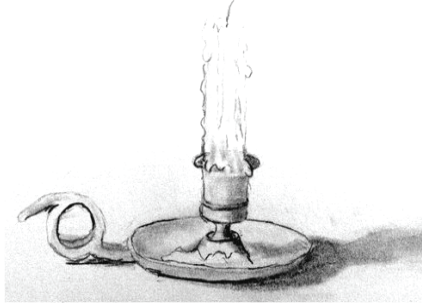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교회만이 종교를 신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정교회는 이 고귀한 신비의 정서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 아토스 성산에서 마지막 인터뷰 때(2000년 7월 14일)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 “어떤 때는 서방의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큰 실망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백 년 후에는 정교회만이 유일한 역사적 교회로 존재하게 될 생각에 기쁩니다. 성공회는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구역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정교회를 끌어안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에서는 전해주지 못하는 참영성을 정교회가 제공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교회와는 다른 어떤 것들을 정교회가 보존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정교회 앞에는 분명 매우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만듭니다.”

정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머리로 또 학문적으로 알라고 요구하지 않고, 신화가 되라고, 하느님을 본받고 하느님의 형상이 되라고, ‘작은 하느님’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 다음 주에 계속



철학 교수



어떤 철학 교수가 교실에서 아주 크고 투명하며 속이 텅 비어있는 통을 하나 들고서 먼저 커다란 돌맹이로 그 속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그 통이 찻느냐고 묻자, 학생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교수는 작은 조약돌들을 들어서는 통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였다. 자갈은 돌맹이들 사이의 빈 공간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통이 가득 찻느냐고 물었고, 학생들 모두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교수가 다시 모래 한 상자를 들어서 그 통 속에 넣기 시작하였다. 모래는 통 속의 빈 자리를 메우면서 잘 흘러 내렸다. 이윽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통이 가득 찻는지 물었다. 학생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교수는, “이제 이 통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돌맹이는 이를테면 여러분의 가족, 건강, 자녀들, 친구들 등등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갈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직업, 집, 자동차 등등입니다. 모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만일 모래를 먼저 통 속에 집어넣는다면 돌맹이나 자갈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들을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에 몽땅 다 써버린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커다란 돌맹이들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곧, 여러분이 다른 일들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결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더 기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주일학교에 참여합시다** ▷ 우리 교회 주일학교 새 학년이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주일학교에 참여하여 올바른 정교인의 가르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줍니다. :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줍니다.

하느님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사랑하게 해줍니다.

정의를 지지하도록 해줍니다.

웃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게 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주 커다란 포용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포용이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NCKK 사순절 금식 기도회 참여**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께서는 NCKK 회장으로 지난 3월 6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개신교 부스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에 참여하여 축도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기자 회견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생자들에 대한 부활의 희망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예배 시간 안내**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두 번의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를 거행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거행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구세주 변모 수도원 봉사 활동** ▷ 지난 두 주간 두 번에 걸쳐 서울 성당 장년회 교인들이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수리, 보수할 부분을 재료를 구입하고 수리, 보수해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제3주간 예식

- 화·수·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15일(수)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3월 17일(금)오후 6시 ▷ 제3성모 기립 찬양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